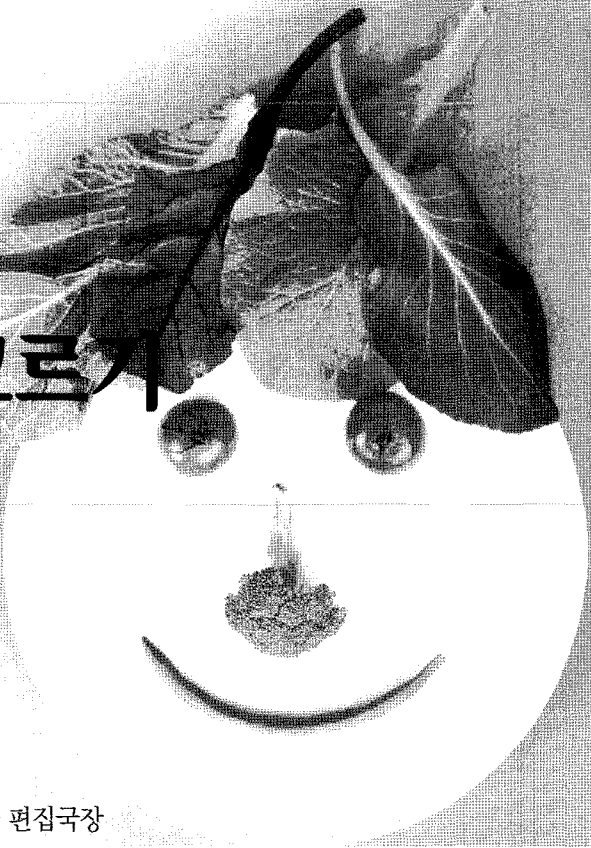


좋은 채소와 좋은 사람 고르기



임 동 준 _ the buyer 편집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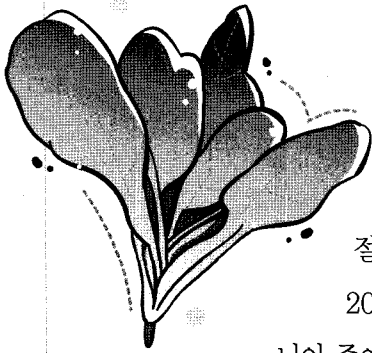
요즘 유행하는 유머 중 '미친× 시리즈'가 있다. (40대까지는 생략하고) 50대에 취직하겠다고 이력서 들고 다니는 ×, 60대에 이민 가겠다고 영어학원 다니는 ×, 70대에 골프 타수 줄이겠다고 레슨 받는 ×, 80대에 연애하겠다고 비아그라 먹는 ×, 90대에 더 오래 살겠다고 건강검진 받는 ×. 유머란 것이 깔깔깔 웃어넘기게 마련인데 이 시리즈는 너무 현실적이면서 실제 볼 수 있는 현상들이라 더 슬프다. 아마도 50대 이후는 다 '미친×' 취급을 받는 듯하고 그 중 압권은 90대다. 이들 모두의 공통점은 강박관념에 휩싸여 산다는 데 있다.

건강이 절대화두인 이 시대에 진정 위협적인 강박관념일지도 모른다. 그러다 보니 무엇을 먹느냐가 삶의 질을 좌우한다고 믿게 되고 '나는 유기농만 먹는다'는 자랑을 자연스럽게

하는 이들이 제법 많이 생겼다. 필자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묻는다. "왜 유기농산물을 고집하는가?" 심중팔구 대답은 "건강을 위해서"다. 그것이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준다고 믿는 이들에게 조금은 섭섭할지도 모르는 이야기를 해보겠다.

'약이 독이 되고, 독이 약이 되는' 게 자연

얼마 전 유럽에서 발생한 장출혈성 대장균의 원인에 대해 논란이 뜨겁다. 우리나라는 아직 위기의식이 미약하지만 유럽과 미국 지역에서는 초비상이다. 일단 발단 품목인 토마토와 오이에 대한 경계심이 확산일로다. 동시에 유기농 채소의 건강성에 대해서도 새로운 (사실 새로운 건 아니다) 조명이 등장하고 있다. 그럴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많다. 일단 사람이 많이 죽었



다. 여름철은 식
중독 발생위
험도가 높은 계
절이기도 하다.

2006년 미국 캘리포
니아 주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그때의 주범은 유기농 재
배 시금치였다. 한 지역에서 식중독에 걸린 사
람들이 줄줄이 사망했고 원인을 파악해보니 모
두 한 회사에서 나온 시금치를 먹은 게 드러났
다. 그 시금치는 유기농산물이었다. 해당 시금
치 상품은 전량 회수됐고 그해 시금치 판매율은
뚝 떨어졌다. 올해는 오이와 토마토가 그 영향
을 받을 것 같다.

이를 지켜보며 수 년 전 농업계 전문가들과
나눈 대화가 떠올랐다. 유기농 맹신주의가 계속
된다면 '머잖아 유기농산물의 위험성 논란이 일
어날 것'이라는 예고였다. 이들 중에는 '농약'
이라는 이름 자체가 부정적 인식을 준다며 '작
물 약'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사람에게도 약이 필요하듯이 농작물에
도 약이 필요한데 농약은 사람의 약보다 왜 이
리 무섭게 느껴지는가, 요즘은 농약의 개념도
바뀌어 가는데 왜 이미지는 과거 그대로인가,
하는 의문이었다. 실제 농약업계는 '작물보호
제'라는 이름으로 대체해 대중화하려 애쓰고
있다. 그들의 이론을 옮겨본다.

"모든 생물은 자라는 동안 많은 병해충과 재
해의 위기를 겪는다. 이들이 생존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자체 면역력을 강화하거나 예방-치료
같은 외부의 보호를 받는 방법이다. 식물은 움직
일 수 없으니 도망쳐 생존할 수가 없다. 따라서
주변의 위해요소, 병충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강력한 수단이 필요하다. 외부의 공격을 방어하
기 위해 자체 독성을 만들어내는 것이 수단 중
하나다. 그 독성 바이러스가 인간에 유해할 가능
성이 높다. 최소한의 살충제나 제초제 사용이야
말로 작물이 독성을 만들지 못하게 하고 스트레
스를 받지 않도록 하는 기본적 보호다."

작물이나 사람이나 '성장원리는 같다'

이 논리를 자녀 양육에 비유해 설명한 전문
가가 있었다. 그의 말은 '작물이나 사람이나 사
는 건 마찬가지'라는 관점으로 출발했다. 요약
하면 이런 논리다.

자녀를 키울 때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
게 된다. 관리형과 방목형이다. 어떤 부모는 처
음부터 끝까지 아이의 모든 것을 관리하려 한
다. 교육, 놀이, 습관, 심지어 사고까지 관여하
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가. 반면에 어떤 부모
는 아이가 자라는 동안 어떤 것에도 관여하지
않는다. 자유롭게 자라도록 내버려두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다. 사회
적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대
부분의 경우 '둘 다 좋은 양육은 아니다'고 여
길 것이다. 가장 이상적인 양육은 무엇일까.

"최소한의 보호와 가르침은 해준 뒤 그 나머
지, 이를테면 개성적인 사고와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주는 것이야말로 어른의 도리다. 지나치게 야생적으로 성장하면 독이 되기 쉽고 지나치게 관리받고 자라면 온실 속 화초가 되기 쉽다. 적당한 교육과 적당한 자유를 보장받고 자랄 때 정서적 안정이 이루어진다.”

그런 성장의 기준과 방법을 우리가 먹는 농작물에 적용한다면 GAP(농산물우수관리) 제도가 가장 흡사하다는 논리다. 고생스럽게 유기농을 고집하는 농업인들에게는 섭섭한 말이겠지만 이것은 소수 귀변론자들의 주장만은 아니다. 과학계에서도 ‘유기농=좋은 영양’이 증명된 바 없고 ‘자연 그대로=안전’을 정설로 삼지는 않는다.

계 건강을 위해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3)그러나 유기농산물이 일반 농산물보다 영양적으로 더 우수하다고 믿지는 말라.

생산과정도 중요하지만 유통과정이 더 중요해졌다

따지고 보면, 자연환경이 건강해져야 인간의 전반적 생활환경도 좋아진다. 그런 간접적 영향 혹은 큰 범주에서 추구하는 건강이라면 유기농 상품 선호가 옳다. 하지만 먹는 식품 하나를 자신의 육체적 건강과 결부시켜 고집하는 것은 너무 경직된 사고다.

그렇다면 우리의 건강은 어디에서 담보하는가. 여유 있는 마음과 깨끗한 위생관리다. 밥상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듯이 어떤 유통과정을 밟느냐에 따라 농산물도 품격이 달라진다. 그것은 유기농-일반농보다, 생산지역이나 국가보다 더 중요하다. 먹을 농산물을 고르든, 사귄 사람을 고르든, 중요한 것은 출산성분이 아니라 성장 혹은 유통과정이다.

도대체 유기농업이 좋다는 건지, 안 좋다는 건지, 애매하다 여길 수 있다. 필자는 유기농이냐 아니냐에 대해 요즘 사람들이 지나치게 민감해한다고 본다. 특히 건강을 위해서 유기농만 고집한다는 말을 들으면 웬지 이기적으로 보이기까지 한다. 반면, 건강과 무관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유기농산물을 (기꺼이 비싼 값을 치르며) 먹는다는 말을 들으면 아름다운 사람으로 보인다.

개인적 견해를 굳이 정리하자면 1)유기농업의 확산은 바람직하다. 2)유기농은 지구의 생태

의 모양이 건강과 직결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 위에 오르는 식재료가 육체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 식재료들의 건강성은 원천적 생산품질보다 유통과정의 보호가 더 중요하다. 선별-포장-운송-판매에 이르기까지, 수확 이후의 점검과 관리야말로 안전과 건강을 담보하는 절대요소다. 가공상품과 달리 농작물은 수확 이후에도 계속 변질되는 생물이기 때문이다.

언젠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식품안전을 담당하는 전문가의 글을 본 적이 있다. 사과를



어떻게 먹는 게 좋은가를 두고 아내와 나는 대화를 소개했는데 ‘우리는 얼마나 어설픈 지식에 함몰돼 사는가’를 실감할 수 있었다. 식품전문가인 그가 집에 들어가 식탁 위에 놓인 사과를 바지에 쓱 문댄 뒤 먹었더니 아내가 “왜 씻지도 않고 먹느냐”고 힐책하더라는 것이다. 그가 되물었다.

“사과를 그냥 먹지, 왜 물로 씻어?”

“껍질에 농약이 묻어 있을 수 있으니까, 씻든지 꺾아먹든지 해야지.”

“하하. 그냥 먹는 게 몸에 더 나아.”

식약청 전문가의 답이다. 설사 사과껍질에 농약이 잔류한다 해도 사과껍질의 효능과 효과를 대비해 보면 그냥 먹는 게 훨씬 이롭다. 농약이 잔류한다고 해서 꼭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기준치에 부합한 양의 잔류농약은 인체에 아무 영향이 없고 사과의 영양분은 껍질에 더 많이 있으니, 그냥 먹는 게 훨씬 좋다는 것. 낙천적 사고가 아니라 합리적이고 과학적 판단에 의한 이론이다. 그 역시 이렇게 주장한다. 채소나 과일을 먹을 때 지켜야 할 것은 유기농이나 일반농이냐를 따지기보다 곰팡이가

핀 것인지 아닌지, 내 손이 깨끗한지 더러운지를 따져라.

작은 변화가 세상을 엄청나게 바꿔놓기도...

필자는 ‘농약이 아무 상관없다’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니다. 과도한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는 것은 요즘 시대의 절대악이다. 그것은 과대생산을 위한 눈가림이고 대량생산을 목표로 하던 시대에서나 먹혔던 늑스 농업이다. 앞으로의 농업은 안전성과 품질관리가 핵심이고 가격 결정 요소도 ‘기준에 의거한 생산’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때의 ‘농약’과 ‘비료’는 관리 혹은 보호제로서의 기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그래서 작물보호제란 명칭은 중요하다. 기업체는 ‘농약’이 아닌 ‘작물보호제’를 생산하는 쪽으로 목적이동이 일어나고 신제품 개발자들은 무의식적으로 ‘작물보호’의 사명감을 갖게 된다. 이름 하나가 갖는 미묘한 역할은 사람을 통해서 충분히 증명된다. 우리는 모두 어떤 이름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 삶의 궤적이 달라지기도 하니까. 이름도 인생의 유통과정에서 가끔씩 이정표 역할을 한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유통처럼 중요한 것은 없고 이름처럼 중요한 것은 없다.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듯이 어떤 유통과정을 밟느냐에 따라 농산물도 품격이 달라진다. 그것은 유기농-일반농보다, 생산지역이나 국가보다 더 중요하다. 먹을 농산물을 고르든, 사귄 사람을 고르든, 중요한 것은 출신성분이 아니라 성장 혹은 유통과정이다. ㉞